

지역 소식통

고창군 예비 귀농·귀촌인 첫 방울토마토 이웃나눔

고창군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생애 처음으로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이웃과 나눠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예비 귀농 귀촌인 30여명은 3월부터 90여일간 양액재배 방식으로 정성껏 키운 방울토마토를 지역이웃(부안초등학교, 무장제일 어린이집)에 전달했다.

입교생들은 "고창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새롭고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맛있게 먹어 뿌듯함과 행복을 느끼고, 앞으로 고창군의 농부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장기간(1년 이내) 체류하며 영농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시설이다. 올해로 운영 5년째를 맞이했으며, 지난해까지 77세대 129명이 정착해, 2년 연속 전국 체류형센터 중 정착률 1위를 달성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대도약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

부안군은 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17일간 부안 대도약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대도약을 주제로 부안군 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응모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부안군청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부안군은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부안 대도약 정책'을 발굴하고 우수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경제성, 지속성, 적용범위 등을 심사하여 금상(상금 30만원), 은상(상금 20만원), 동상(상금 10만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결과는 오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고창군, 노후포구 정비 등 추진 박차... 해양수산부 현장 자문회의

전북 고창군이 갯벌축육체험장과 탄소중립식물원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흥덕문화복지관에서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자문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자문위원 5인, 지역협약체 자문위원 3인, 고창군 관계자, 사업수탁 기관인 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산·어촌, 역사·문화·관광, 건축·경관·디자인 등 기본계획 수립 전 지역여건을 분석했다. 또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포권역의 차별화된 콘셉트를 도입해 보다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구상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오는 10월중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 11월 실시계획용역, 내년 5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신개념 상포권역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비 약 82억원을 투자한다. 고창군 부안면 상포·반월, 흥덕면 후동·후서·사포마을의 노후포구정비 등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2050년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제로 갯벌(후포) 축육체험장, 탄소중립 식물원, 탄소중립 아열대 친환경 주차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진행한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증대,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사업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촌관광을 활성화해 어민과 지역주민이 즐거운 어촌, 관광객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어촌, 평범함의 가치를 발굴하는 소중한 어촌을 만들어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6일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75회 임시회'를 개최해 이틀간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고경운 의원 · 부의장-황혜숙 의원

제9대 정읍시의회 의장단이 선출됐다.

6일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75회 임시회'를 개최해 이틀간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첫날 이뤄진 의장·부의장 선출과정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에 단독출마한 고경운 의원과 황혜숙 의원이 의회 정원 17명 만장일치로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어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는 역시 단독출마한 이상길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장에, 이복형 의원이 경제산업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두 상임위원장이 단독출마에 의한 가부투표였던 반면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도형 의원과 정성철 의원이 각각 출마해 표결이 이뤄졌다.

결과는 이도형 의원이 8표를 얻어 8표에 그친 정성철 의원에 앞서 자치행정위원장에 선출됐다.

고경운 의장은 "정읍시민과 의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의장 직책의 중요성과 역할을 무겁게 인식한다"며 "8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정적을 바탕으로 오직 정읍시민과 정읍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숙 부의장도 "고경운 의장과 함께 제9대 정읍시의회가 시민과 의회 중심의 진정한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시민과 더욱 활발한 소통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취임 첫 주요 기관·단체 방문 '소통 행보'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 중심·옴뎀 정읍' 실현 위한 긴밀한 소통·협력 당부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주요 기관·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취임 인사를 겸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기관방문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과 단체의 실정을 이해한은 물론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경청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먼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정읍소방서, 정읍역, 전북 서남상공회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어 지난 5일은 NH농협 중앙회와 우체국 정읍사무서, 정읍경찰서,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등 8개소를 방문해 각 기관의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발전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주요 기관·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취임 인사를 겸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또 민선 8기 시장 활동 방향을 설명하는 등 원활한 시장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학수 시장은 "민선 8기 정읍시장

의 대원칙인 '시민 중심, 옴뎀 정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단체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로컬JOB센터, 일손부족 해소 '단비'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희진)의 영농철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도농 상생형 농가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가 빛나고 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농 상생형 농가 일자리 지원사업'은 관내를 포함한 도시지역 비경제활동인구를 발굴하여 농촌지역 일손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센터와 고창군은 관내를 포함해 광

주광역시·정읍시 등 인근 시 단위 지역의 아파트 단지·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그결과 6월 말 기준 구직자 150여명과 구인처 105건을 찾아냈다. 이들을 활용한 농가 일자리 발굴과 채용연계 건수는 190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관외 도시지역 구직자들을 활용한 연계 건수는 660건에 이른다.

이번 농가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 농가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농



가에는 중식비·간식비 및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도시지역 구직자들에게는 교통비를 제공해 경제적 지원까지 뒷받침되어 만족도가 높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전기차 구매 지원

정읍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금과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하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 41억 원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117대와 전기 화물차 102대 등 총 219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 화물차 구매 시민에게는 최대 2,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약 1,000대 분량의 조기 폐차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차 추가 보급사업은 오는

11일부터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출고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11월부터 15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정읍시청 환경과에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차 보급과 조기 폐차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민간 보급에 31억원을 편성해 전기자동차 170여 대를 보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